



아주 지겨운 이야기

글 김아영 작가

2016년 가을, 그리고 2018 또다시

SNS상에 '#예술계_내_성폭력'이란 이름으로 성추행과 성폭력의 경험에 대해 긴 고백과 폭로가 이어졌던 것은 2016년 가을이었다. 당시 가해자로 호명된 이름들이 너무나 친숙했던 우리의 후배, 동료, 선배. 멘토로서 이 자그마한 미술계에 자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큰 충격을 겪었다. 많은 이들이 업무에 집중

하지 못했고 잠 못 이루었다. 생생히 기억난다, 그 날들이. 이제 그로부터 약 1년 반쯤 시간이 지났고, 그때의 충격이 다 가라앉지 않았음에도, 또 다른 충격의 파도가 겹겹이 밀려와 만성피로를 조장하는 중이다.

최근 확산된 '미투 운동(#MeToo Movement)', 특히 문화예술계와 관련한 미투 고백들과 이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응시하며 다

시 한번 깨달았다. 인간은 직접 경험하지 못한 일에 놀라우리만치 무감각할 수 있다는 것. 상상으로는 많은 일들에 가담할 수 없고, 축적 가능한 영역에 있어야만 인지 가능한 것일까. 인간의 공감 능력에 이렇게 큰 한계와 맹점이 있었음을 이러한 방식으로 확인하게 되다니. 씁쓸하고 화가 났다. 혹자는 국내의 미투 운동이 정치공작의 일환이라고 본다. 혹자는 붓물처럼 터져 나오는 일련의 고백과 폭로가 좀 더 정돈된 형태로, ‘올바른’ 형태로 빚어져야 한다고도 한다. 혹자는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들 중 무고한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혹자는 여성과의 사이에 오해를 살 만한 일이나 억울할 만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펜스룰(pence rule)¹을 선언하기도 한다.

좋다. 예전에, 지질학에 대해 읽은 흥미로운 구절이 있다: 대상에 가해지는 자극 또는 힘이 가용치를 넘어서 대상이 탄성력을 소실하고 원래 상태로 복구될 수 없을 때, 이 대상은 영원히 변형되고 만다. 여기에 변형력이 더 가해지면 물체는 결국 파괴된다. 외부 자극—스트레스와 변형력과 가소성에 대한 얘기다. 고유의 상태를 영영 회복할 수 없을 때, 대상은 본래의 모습이 뒤틀리거나 끊어지는 모습으로, 즉 비가역적으로 변형함으로써 그 변형력을 방출하고, 가시화하고 폭로하는 것이다.

하물며 사물도 이럴진대, 이 대상을 인간으로 바꾸어 보라.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투 운동의 인과관계를 이에 대입해 보라! 미투 운동은, 여성들이 평생을 살아오며 누적된 외부 자극이 가용치를 넘어, 개인 혹은 복수의 개체가 더 이상 원래 상태로 복구될 수 없을 것만 같은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이대로 조금만 더 지속되면 결국 파괴되고 말 것을 예감할 때, 더 이상 우회하거나 피신할 도리가 없을 때 내지르는 비명이다. 다른 해결법을 찾을 수 없을 때, 혹은 기존의 해결법들이 유명무실함을 인지할 때 압력발출처럼 터져 나오는 반작용이다. 이것은 지진이고, 화산 폭발이고, 지각 변동이다!

내용물이 임계점을 넘고 끓어올라야 화산이 폭발한다. 분화구에 차곡차곡 쌓인 먼지와 빗물과 흙더미를 터뜨리고 분출한다. 그 순간, 누적된 에너지가 더 이상 고유의 상태를 용납하지 않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통상적 절차와 이성적 개입이 가능한가? 누가 이 불가항력의 순간에 통솔과 질서를 요구하는가? 누가 이에 대해 판단하고 정령을 명령하는가? 차라리 악을 쓰고 외치며 종을 울릴 일이다. 나를 비롯한 많은 여성들은 지금의 이 비명들이 너무나 소중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 흐름이 한참 더 지속되어야 마땅하다고 믿는다. 정돈과 질서는 그 이후의 것이다.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

문화예술계 미투 고백들과 관련하여, 이 계열의 독특한 생태에 대

해 조금 고려해 봐야 할 것 같다. 왜 최근의 미투 운동 중 팔목할 만한 수의 피해자가 문화예술계에서 속출되었으며,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소수의 가해자로부터 그렇게 많은 여성들이 반복적으로, 또 비슷한 수법으로 꾸준히 피해를 입을 수 있었는지 말이다. 어떻게 그 긴 세월 동안, 소수의 가해자들은 나라 안팎의 활동으로 승승장구하고, 그들의 예술가적 가치가 높아질수록 더더욱 그들이 속한 세계에서 군림할 수 있었는지 말이다.

비교적 작은 규모로 유지되는 각 분야의 예술계에서, 개인이 예술가로 온전히 성장해 가기까지의 과정은 해당 분야 전문 집단의 동의나 지지를 필요로 한다. 희망자의 수에 비해 소수만이 활동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예술계의 특성상, 이 동의와 지지를 창출하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또한 예술가는, 작품세계를 형성해 나갈 때까지의 짧지 않은 과정 때문에 한동안 주변으로부터 부양받는 존재로 지내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지원이나 공모 제도의 도움은 매우 중요하다. 한편, 국내의 교육 구조와 정서상, 학창시절에 학생이 지도자나 선생님과의 위계에 놓인다면, 졸업 후에는 그 지도자들이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선배 예술가이자, 나를 발탁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심사위원이 되기도 한다. 한 마디로, 이 좁은 울타리 속에서 많은 인연은 아마도 평생 이어질 것이며, 만에 하나 누군가가 발탁 혹은 배제의 권한을 남용하려 한다면, 특히 이러한 남용이 은근한 성적 요구로 이어진다면, 대개 어리거나 젊고, 경험이 부족한 대상은 큰 혼란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 어떤 방식으로든 권한을 지닌 사람이 대상의 활동에 평생 영향을 미쳐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아주 지겨운 수사학

여기에, 남녀를 막론하고 아마도 한국 사회에서 술하게 들어왔을 아주 지겨운 수사가 있다: “내 말을 거절하면 너는 이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혹은 “내 말을 들으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등.

내가 너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 나를 따르라는 가장 수준 낮은 방식의 협박이다. 그런데 한국 여성들에게는 특히 이 수사, 혹은 이러한 압력의 느낌이 너무나 익숙하다. 이러한 사고방식과 태도는 많은 문화예술계 성폭력 가해자의 일상적 태도에 스

¹ 성추행, 성폭행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적인 반력자인 아내 외에 다른 여성들과 교류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지닌다. 2002년 당시 미국 부통령이었던 마이크 펜스(Mike Pence)가 미국 의회 전문지 ‘더 힐(The Hill)’, 인터뷰에서 아내 없이 다른 여성과 식사나 술자리를 갖지 않는다고 했던 발언에서 비롯된 용어다. 편집자 주.

며 있는 듯 보이고, 나아가 최근 불거진 미투 고백에서의 성폭력의 근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가해자들 중 예술적으로 능히 평가받아 온 예술가일수록 이러한 태도의 거리낌 없음이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무엇이 이들의 윤리 의식을 마비시킨 것일까. 회한하게도 작품세계의 성장기, 일상생활에서의 자아도취와 윤리 의식 마비로 이어졌던 걸까.

한 심리분석가는 권력형 성폭력에 대해, 가해자가 스스로의 행동을 정당히 여기는 것을 넘어서, 본인의 행동을 시혜로 여길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그게 사실이라면 이는 매우 병리적 현상이므로 반드시 치료가 필요할 일이다. 예술작품에는 최대치의 도발과 자유분방, 방종, 일탈 등이 허용되어야만 하지만, 이것이 예술가 개인의 비도덕성과 비윤리성을 허락하는 것이 아님은 너무나 자명하니 말이다. 어쩌면 한국 사회는 지난 수십 년간 예술 자체가 아닌 예술가의 일탈에만 너무나 관대했던 것은 아닌지.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력상 체급 차이가 현저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화예술계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들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거나, 또는 도리어 피해자를 고소하거나, 단기간의 근신 후 돌아와 활동을 지속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들었다. 이러한 경우, 용기 내어 가해자를 고발한 피해자들에게는 일생을 관통하는 두려움이 시작될 것이다. “내가, 너의 미래와 예술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유명 영화감독으로부터 배역을 담보로 성추행을 당한 한 배우가, 환멸 속에서 영원히 영화계를 떠났다는 일화는 웬지 익숙한 이야기다. 그 계열을 떠나지 않고서는 절대 끊기지 않을 질긴 인연, 악연. 그런데 왜, 떠나게 되는 사람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인가?

제도적 장치 또는 인간 장벽

결국 문화예술계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제도적 차원의 방어막이다. 국가가, 사회가 성폭력에 대해 충분한 형량 또는 사회적 처벌을 제공한다면, 두려워서라도 조심할 일이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오래도록 벌어지지 않았고, 그렇다면 사회 구성원들이 마음을 모아서라도, 가해자/범죄자에 대한 호된 인간 장벽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잘못을 저지르면 어떤 식으로든 벌을 받는다는 통념 형성이 필요하다. 폭력 주체에게 압박이 가게끔, 범죄자 스스로 수치심을 느낄 수 있게, 성폭력에는 평생 비웃음과 불이익이 수반될 것이라는 경고를 확실히 전달해야 한다. 현대, 그 일에 앞장서야 할 언론이 성폭력에 관한 기사들을 쏟아낼 때, 특히 다양한 뉴스 헤드라인들에서 종종 우회적 포르노그래피를 본다. 언론의 말을 쓴 은근한 포르노그래피, 여성 피해자를 대상화한 선정적 헤드라인이 언론에서 반복 허용되고, 사회 구성원은 죄책감 없이 이를 은밀히 즐기는 사회. 그러한 사회는, 그러한 인식을 자

연스레 내면화한 사회 구성원을 양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때 여성문화예술인연합 WACA(Women's Association of Culture and Art)의 출현은 감시탑 혹은 인간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여성문화예술연합 WACA는 미술 분야의 '여성예술인연대', '푸시텔', 영화 분야의 '찍는페미' 및 감독들, 디자인 분야의 '여성디자이너정책연구모임 WOO', 전시 기획 분야의 'Gathering A', 문학 분야의 '참고문헌없음 준비팀', 사진 분야의 '사진계성폭력감시자연대', 출판 분야의 '언론노조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 부산 여성 작가모임인 '페미광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최근 WACA는 예술계 성폭력 정부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고, 여성가족부 장관과의 만남을 통해 제도신설 또는 개설 차원의 예술계 내 성폭력 대책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결과, 성폭력 범죄를 일으킨 예술가에게 정부 보조금 등 공적 지원을 배제하기로 하는 등의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마치며

마지막으로, 최근의 성폭력 논의를 지켜보며 의아했던 것 중 하나는, 국내에서는 왜 성범죄를 병리학적으로 다루지 않는가 하는 것, 어쩌서 전문 치료센터 혹은 재활 시설을 마련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었다. 2016년 가을, #예술계_내_성폭력 이슈가 불거졌을 때에도 본인은 가해자들에게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어느 지면에 썼었다. 빈번히 반복되는 무자각적 성폭력의 기저에는 그렇게 해도 나쁠 게 없다는 인식이 짙게 깔려 있는 것이고, 이 깊은 도덕적 불감증은 치료를 통해서만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가해자들을 일정 기간 동안 수용하고 갱생시킬 수 있는 전문적 치료 또는 재활의 공간이 요원하게 여겨진다. 앞서서도, 권력형 성폭력의 어떤 경우, 가해자가 스스로의 행동을 정당히 여기는 것을 넘어서, 본인의 행동을 시혜로 여길 수도 있다는 대목에서, 이는 매우 병리적 현상이므로 반드시 치료가 필요할 일이라고 썼다. 문화예술계 성범죄자에게 특화된 갱생원을 상상로나마 떠올려 본다.

그리고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다른 여성들에게, 그리고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강력히 촉구하고픈 것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보다 훨씬, 아주 훨씬 더 많이 거칠어져도 좋다는, 아니, 거칠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많은 여성들이 일생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너무 오래, 너무 많이 고민했다. 소중히 찾아온 이 지진, 화산 폭발, 지각 변동의 순간, 분출하는 힘을 최대치로 밀어 올려 이전과 같지 않은 세상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이 논의는 두고두고 반복될 것이다.

이것이 아주 지겹고, 낯고, 고답적인 옛날이야기가 될 어느 날을 상상해 본다. ▣

여성문화예술연합 성명서

“예술계 특수성 반영 없는 정책으로는 문화예술계 성폭력은 해결되지 않는다.”

#MeToo 운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2016년 10월 '#오타쿠_내_성폭력'을 시작으로 미술, 디자인, 문학, 사진 분야 등 많은 분야의 예술인들이 자신이 겪은 성폭력을 용기 내어 고발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발들은 사회의 무관심 속에 명예훼손과 무고죄와 같은 보복성 고소로 잊혀져갔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대리인들과 조력자들도 피해해져 갔다. 예술계 내 성폭력을 대처하는 어떤 시스템도 없었기에 가해자들은 반성도 없이 너무도 쉽게 예술계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17년 2월 여성문화예술연합에서 문화체육부와 여성가족부에게 전달한 요구사항을 시행했다면 보복성 고소로 인한 피해가 이 정도로 심각하지 않았을 것이며, 가해자들이 당당하게 돌아올 일도 현저히 적었을 것이다. 우리는 현재 정부 부처의 졸속 대응을 보며 이와 같은 일이 올해에도 다시금 반복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여성문화예술연합은 2017년 1월 결성되었다. 문학, 미술, 영화, 디자인, 전시 기획, 사진, 출판 등 총 7개 분야 아홉 단위가 모여 예술계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에 지속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예술계 성폭력 실태조사, 문체부 내 성폭력 전담 기구 설립,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성 조치, 예술계 성폭력 예방 교육 의무 실시 등 실질적 대책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1년 동안 여성문화예술연합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실행하겠다'는 답변과 '문체부에서 그 일을 할 근거가 없다', '예산이 없다'는 답변 사이에서 지쳐왔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장관 취임 후 이번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예술계 성폭력 대책을 세우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었다.

2018년 서지현 검사의 #MeToo와 최영미 시인의 #MeToo를 기점으로 연극계에서 붓물 터지듯 #MeToo 운동이 이어졌고 각계의 권력자에게로 확산되고 있다. 문체부는 여론과 국회의 압박이 커지자 지난 1년간 여성문화예술연합이 요구했던 정책들을 실행하겠다고 2월 20일에 발표했다. 언론에 보도된 기사만 보면 문체부는 필요한 정책들을 잘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성문화예술연합이 문체부로부터 듣고 있는 얘기는 '가해자의 공적 지원금에 대한 제한 조치는 할 수 없다', '신고는 여가부의 기존 기관에서 하면 된다', '기존 기관들의 예술계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은 여성문화예술연합이 도와서 하면 된다', '조사는 수사기관이 아니라서 할 수 없다', '근거조항이 없다' 등 회피적인 답변들뿐이다. 게다가 2017년에 실시한 예술계 성폭력 실태 시범조사에 대해서는, 조사 문항을 작성하고 조사 대상에 대해 자문을 했던 여성문화예술연합에조차 제대로 된 분석결과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런 무책임하고 관성적인 태도를 볼 때 문체부가 과연 예술계 성폭력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든다. 문체부는 1년 동안 많은 일을 해왔고 앞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결정된

것처럼 언론에 발표하는 기만적인 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중략)

예술계는 공적 지원금이 많이 투입되는 곳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인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을 비롯한 지역 문화재단, 지자체 등을 통해 문화예술사업 등으로 공적 지원금이 투입된다. 이 문제에 대해 문체부는 확실하게 징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책임지고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예술정책을 관할하고 공적 자금 집행을 결정하는 정부 부처로서의 책임이다. 현재 법률적 근거가 없다면 국회와 협조해 근거 조항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국회와 정치권에 말씀드린다. 성폭력 문제에 여아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이념진영이 따로 있을 수 없다. 1년 동안 예술계 성폭력 해결에 미온적이었던 국회와 정치인은 예술계 성폭력을 정쟁에 이용하지 말고, 문체부와 장관에 대한 비판을 진영논리로 취급하지 말라. 국회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고, 필요한 입법을 조사하여 적극적으로 입법 활동을 하길 바란다.

시민단체와 여성단체에 말씀드린다. 작년과 달리 예술계 성폭력 사건에 연대의 목소리를 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정책을 제안하는 데 있어 여성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존중하기를 당부 드린다. 일부 시민단체와 여성단체들은 여성 예술인들의 운동방향을 충분히 이해하거나 소통하지 못한 채, 문체부에 별도의 창구가 필요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가해자가 예술계에 복귀를 못하게 예방하는 일이 우리 활동에서 가장 큰 목표 중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체부의 성폭력 신고 창구 개설은 가해자에 대한 공적 지원금과 공적 지위 부여를 중단하고 예방하는 시스템과 연계하기 위해 필요하며, 하나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동안 예술계는 반성폭력 정책의 사각지대였다. 성폭력 예방교육이 없었고, 예술계 성폭력 실태조사도 없었으며, 성폭력 성희롱을 신고할 예술계 창구도, 그것을 조사하고 해결할 기구도, 가해자에 대한 비사법적 제재 방안도 없었다. 시스템이 전무한 상태에서 새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1년이 넘게 외면해온 정부가 대통령과 장관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예산과 실효성을 제대로 점검하지도 않고 예술계 성폭력 특수성을 반영할 장치를 마련하지도 않고 성급하게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예술인들은 1년이 넘게 기다렸다. 아무도 신고하지 않는 신고센터, 신고해도 어떤 해결도 없는 창구를 기다린 것이 아니다.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라. 컨트롤타워를 맡은 여가부장관은 문체부가 예술계 성폭력 해결 시스템을 실효성 있게 만들도록 강력하게 견인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예술계 특수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대로 만들라.

2018년 3월 7일
여성문화예술연합